부산시, 특별방역·경제안정 등 6대 추석 종합대책 마련

성묘·봉안시설 종합상황실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늘리고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부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비롯한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둔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명절 종합대책'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비롯하여 경제안정 등 6대 분야, 38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시는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성묘·봉안시설이 2년 만에 정상 운영됨에 따라, ▲성묘·봉안시설 종합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와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강화 ▲요양시설 비대면 면회 등 감염 취약 노인시설 방역수칙 준수 독려 등을 통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보건소·응급의료기관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연휴 기간 지역감염 신속 차단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50만 원→70만 원)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적기 출하 관리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 지원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을 통한 불공정 거래 단속 지도 ▲체불임금 집중 관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10,133명) 실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하여 화재,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교통·수송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올해는 성묘·봉안시설 등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성묘객 수송 및 주차 편의 방안도 마련되었다.

중증 장애인 등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를 운영(9.5.~8)하여 연휴 기간 긴급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노숙인 무료급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한다. 또한, 지원기관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연휴 전후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해소를 위한 비대면 문화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급수상황실 운영 및 비상급수 대책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맞이 클린부산 기동365팀'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및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시와 구·군에 대책반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女농업인 역량강화 앞장 신안군, 소통교육 실시

14개 읍면 여성농업인 220명 대상
기후위기 대응 식물가꾸기 특강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농업·환경·문화를 앞장서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1일 자은 씨원리조트에서 14개 읍면 여성농업인 220명을 대상으로 소통교육을 실시했다.

식전행사로는 압해읍생활개선회 풍물과 팔금면생활개선회 난타 공연을 추진하고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식물가꾸기 특강이 진행됐다. 각 가정에서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칙을 배운 후 미세먼지 저감 식물인 박쥐란을 심어보는 실습도 추진하였다.

특히 부대행사로 숲이 울창한 신안! 탄소중립 실천 도시! 슬로건을 주제로 한 포토존 구성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체험행사로는 농가 카페형 핸드드립 체험을 생활개선회임원들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전시행사로는 군 컬러 마케팅에 걸맞은 화려한 색감의 지역농산물 가공품 전시로 대파테라, 지역특화빵, 농산물가공센터 등 군이 개발한 농산물 가공품 전시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후변화 위기 속 우리군은 많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며 "청정지역인 우리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작은 것부터 각 가정에서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경상남도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남도

경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9대 생활수칙 홍보 등 진행

경상남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을 맞아 9월 한 달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기혈관 숫자'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를 알고 정기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혈관(Red Circle레드서클)을 만들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인식개선 캠페인 슬로건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심뇌혈관질환자들은 물론, 일반 도민들도 자기혈관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상범위내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홍보 ▲자기혈관수치 측정,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예방 홍보물품 배부 및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직장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남=장병호 기자

부산시의회, 시·교육청 추경심사 돌입

시, 당초 14.3조 대비 1.4조 증가
교육청, 4.9조→25% 늘어 6.1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4조 2,690억원 대비 1조 4,600억원(10.2%) 증가한 15조 7,290억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대책, 일상 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조 8,753억원 대비 1조 2,347억원(25.3%) 증가한 6조 1,100억원으로, 학력 신장과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 등 교육 회복을 통한 학교 정상화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되,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전남·광주 거주 3개팀 7명 이내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광양여행 참가자를 9월 1일부터 14일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전남·광주 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3개 팀(1~3명), 7명 이내로 모집한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14일까지 신청서, 여행 및 홍보계획서 등 해당 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dear99@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9월 21일 개별 통보 예정이며, 참가자는 올해 11월까지 광양을 여행하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지역 이모저모

남해군

감사팀-노조 '청렴캠페인'

남해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 감사팀과 공무원 노조가 공동으로 군청 내 부서를 돌며 공무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청렴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은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청탁 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안내 ▲공무원 3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근절 ▲청렴도 평가 안내 등이다.

특히 청렴캠페인의 하나로 장충남 군수가 '청렴라디오'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장충남 군수는 "소통하고 올곧은 공직 문화가 청렴의 바탕"이라며 "남해군 공직자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청렴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사랑애 서포터즈' 육성

전라남도는 농수축산물 판촉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육성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대규모 후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서포터즈에 가입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도내 생산품 판매 촉진 및 전남 관광 활성화 등에 참여·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 가입은 9월 8일 개시하는 전남도청 누리집의 서포터즈 신청탭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신청서 작성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고흥군-고흥우체국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맞손

전남 고흥군은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고흥우체국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통합쇼핑몰 '고흥몰'을 개설해 지역 농어가 등이 양질의 상품 생산, 가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판매를 돕고 있으며,고흥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B2B, 제휴입점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고흥몰'과 '우체국쇼핑몰' 간 연동체제를 구축하고 우체국쇼핑몰에 고흥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한 '고흥군 브랜드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